

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8. 11. 12. (화)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공공주택기획처	담당자	강성민 부장 (055-922-3861) 김남훈 차장 (055-922-3862) (010-8866-4560)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로 조성

-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통지침 마련,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 구현
- 과천과천 · 수원당수2 · 안산신길2지구에 시범사업 추진

LH(사장 변창흠)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과천과천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시범지구) 과천과천(1,555천㎡), 수원당수2(680천㎡), 안산신길2(745천㎡)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2차원 도시계획을 세운 뒤 3차원 건축계획을 수립했던 기존 택지개발 방식과는 달리 도시와 건축이 조화된 도시공간 구현이 가능하며, 획일화되고 단절된 주거단지에서 다양하고 열린 주거단지로, 개인 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LH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용할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공통지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며 △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개발하게 된다.

□ 개발방향 예시



한편 LH는 과천과천지구를 첫 번째 시범지구로 선정해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설계용역비는 약 60억원 수준(마스터플랜 10억원, 시범설계지구 50억원 예정)이다. '19년 11월 12일(화)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22일(금) 참가접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2월 28일(금) 공모안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고문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당선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200세대 수준) 설계용역'의 설계권을 가진다. 또한 '총괄건축가'를 지정해 시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지구계획을 맡을 업체와 협업해 지구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른 시범사업지구인 수원당수2 및 안산신길2 지구는 향후 지구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람·가로·공동체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 이번 도시건축 통합계획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블록과 개별단지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도시 개발방식은 시민들의 공간을 폐쇄적 집단들로 분리하여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고립되고 접속·소통이 차단된 도시공간을 양산하여 왔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서로 단절되어 만들어진 지역지구는 삶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이곳과 저곳을 모두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으며, 임대와 분양을 따로 구분하는 주거 공급방식은 시민들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단지별로 부대시설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공유시설의 다양성 부족 및 중복공급 문제를 초래하여 왔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현실 속에서 본 공모가 주제로 제시하는 것은 소규모 블록들이 도시 공공가로공간과 직접적인 접속·소통 관계를 갖는 도시,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계층 세대 융합이 일상화하는 도시, 단지별 자족적 부대시설보다는 지역이 공유하는 시설이 풍성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 가로공간이 시민들의 문화·경제 생활을 촉진하게 하는 도시, 건강한 시민공동체 형성을 자극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중심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본 공모의 지향점이다.

지금 과천의 새로운 시도는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대단지 공간계획이 아닌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의 일상적 삶이 부각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다양성과 다름이 존재하고, 장소, 환경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삶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본 공모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가 소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 중심의 공유도시』란 어떤 도시이며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본 공모는 시작되며, 우리는 공모에 참여하는 제안자들에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도시·건축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